

## 일본 지역주민조직의 활동과 기능\*

윤 정 로

이 논문은 도쿄 근교 가와사키시 남부의 구시가지지역과 가마쿠라시 신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일본 전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주민조직인 조나이카이 지치카이(町内會·自治會)의 기능과 성격을 도시지역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고, 同조직의 앞으로의 존속과 변용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와사키시 소재 사쿠라모토 1조메, 오오시마 1조메, 오오시마 2조메와 가마쿠라시 소재 시치리가하마 지역의 단위 조나이카이 활동을 지역적 배경과 주민구성, 조나이카이 조직과 리더십, 활동 내용, 수입·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나이카이 활동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 조나이카이의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는 주민 구성의 안정성과 리더십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 두 변수의 조합에 따라 행정의존형, 주민자치형, 혼합형, 부흥형으로 조나이카이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사례에서는 사쿠라모토가 행정의존형, 시치리가하마가 주민자치형, 오오시마가 혼합형과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흥형은 경험적으로 매우 드물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지역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조나이카이의 가장 기본적이고 비중이 큰 활동은 행정보조활동이며, 조나이카이의 복합적 기능과 역사적 지속성은 행정적 필요성에 따른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조나이카이는 역사적으로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력을 보여 왔으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자발적 결사체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조나이카이 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시도도 그 적응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끝으로, 일본 사회에서 상당한 광역을 단위로 하는 현재의 행정조직 편제가 지속되고 행정과 소규모 지역사회를 매개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행정 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없는 한, 조나이카이는 최소한 다기능 행정보완조직으로서 존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I. 서 론

이 논문은 도쿄 근교 가와사키(川崎)시 남부의 구시가지지역과 가마쿠라(鎌倉)시 신개발주거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오늘날 일본 전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역주민조직인 조나이카이·지치카이(町内會·自治會)<sup>1</sup>의 기능과 성격을 도시지역에

\* 이 글은 교육부 주관 지역연구지원사업에 의해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1 조나이카이·지치카이란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성원으로 하여 그 지역에서의 공동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을 처리함으로써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 지역주민조직의 총칭을 의미하며, 이 논문에서는 조나이카이로 약하기로 한다. 1980년에 실시된 일본自治省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3,278개 市町村 중에서 이런 조직이 없는 곳은 8개에 불과하고, 전국

중점을 두어 파악하고, 일본 사회의 지역적 공동생활 조건의 변화에 따르는 同조직의 앞으로의 존속과 변용 가능성에 대하여 전망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9세기 말 이후 일본 근대 국가와 행정제도의 성립과 함께 전통적인 주민자치단위였던 조나이(町内)가 해체·변용되면서 출현하기 시작한 조나이카이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르는 생활양식 및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강한 지속성과 적응력을 보여 왔다. 군국주의의 기초조직이며 일본 사회의 민주화에 저해적이라는 이유로 1947년 미군 점령 당국에 의하여 해체되었던 조나이카이는 놀랍게도 1952년 강화조약체결과 함께 단시일내에 전국적으로 부활하였다.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며 1960년대 중반부터 조나이카이에 대한 내지는 거부하는 성향을 가진 새로운 지역주민조직과 사회운동이 급속히 활성화되고, 1970년대 말에 이르러는 조나이카이에 대립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코뮤니티즈쿠리’(コミュニティ作り) 또는 ‘마치즈쿠리’(街造り, 町造り) 운동이 확산되면서 조나이카이의 위상이 일반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일본 전국에 조나이카이가 존속하고 새로이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나이카이를 확고히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과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보임으로써,<sup>2</sup> 일본 사회에서 조나이카이의 활동과 위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sup>3</sup>

조나이카이의 성립 배경과 기능 및 성격,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전문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상이한 시각들이 제시되어 왔다. 1952년 조나이카이 부활 시비론이나 1959년 東京都町會連合會 결성을 계기로 한 조나이카이의 압력단체화 논쟁을 비롯하여 전후 수차례 광범위한 분야의 학자들 사이에 격렬히 전개되었던 조나이카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배후에는 조나이카이의 성격 규정과 그에 대한 가치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조나이카이가 기능비분화적이며 관습적인 반관제(半官製)조직인가,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조직인가, 또는 일본 고유의 ‘문화형’(文化型)이 발현된 특수한 자연발생적 조직인가를 가리는데 있는 것 같다(秋元律郎, 1990; 菊池美代志, 1990; 中村八郎, 1990; 田中重好, 1990).

조나이카이의 기능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이 논문에서는 현재 조나이카이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사례연

적으로 총 274,738개의 조나이카이가 결성되어 있다(秋元律郎 1990: 149-151; 倉澤進 1990: 2; 中田實 1992: 5).

2 1991년 4월 일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부동산 등의 재산을 조나이카이 명의로 보유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는 ‘지연(地緣)에 의거한 단체,’ 즉 조나이카이의 법인화(法人化)를 위한 핵심적 조치로 볼 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宮崎伸光(1992)을 참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나이카이 활동에 대하여 회관 건설비의 장기저리 융자, 운영 보조금, 인력 파견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谷富夫, 1988).

3 조나이카이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성격에 대한 논의는 Bestor(1989), Dore(1958), 連見音彦(1980), 菊池美代志(1990), 倉澤進·秋元律郎 編著(1990), 生活科學調査會(1962), 吉原直樹(1989)를 참조.

구방법을 이용한 이 논문에는 중요한 방법론적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그 결론도 잠정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음을 먼저 밝혀 둔다. 첫번째 한계는 사례의 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조나िका이의 형성 과정과 위상이 지역에 따라 커다란 편차가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구의 범위를 도시지역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 논문에 제시되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문제시될 수 있다. 둘째, 현지조사가 1주일(1993년 2월 6일-13일)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분석이 1차자료라 하더라도 주로 문서화된 자료나 조나िका이 임원들에 대한 면접조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사례연구 및 연구문헌과의 간접적 비교를 통하여 이상의 방법론적 한계가 부분적으로는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참여한 공동연구팀은 조사대상 지역주민 및 관계 인사들과 단기간내에 래포(rapport)를 형성하여 기대 이상의 일차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이 주제와 지역에 대하여 심층적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므로, 이 논문은 일종의 예비조사(pilot study) 보고서로서 탐색적인 가설 창출(heuristic hypothesis generation)에의 유용성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조나िका이의 활동 사례를 제시하기에 앞서, 가와사카시의 역사적, 지역적 특성과 조나िका이 활동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조사대상지역의 조나िका이 활동을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 II. 川崎市의 특성과 町内會 개황

가와사키는 도쿄와 요코하마(横浜)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로, 다마가와(多摩川) 연안을 따라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늘고 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남동부는 도쿄만에 닿아 항구를 이루고 있다. 1991년도 시점에서 면적 144km<sup>2</sup>, 세대수 48만, 인구 119만의 규모를 가진 政令指定都市로서, 인구를 기준으로 일본에서 9번째로 큰 도시이다(川崎市 『92統計ハンドブック』: 14).<sup>5</sup>

가와사카시는 근대공업도시로의 발전 과정에서 주변 町村의 편입을 통하여 시역(市域)이 확장되었으며, 현재의 22개 地區町内會連合會는 과거 町村의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지역을 단위로 하고 있다. 1924년 남동부 해안지역의 가와사키마치(川崎町), 고사이와이부라(御幸村), 다이시마치(大師町)가 합병되어 가와사키시로 된 이후, 1939년까지의 수차례에 걸친 편입과정을 통하여 다마가와 상류 방향으로 확장해가면서 현재의 시역이 형성되었다. 1972년 사포로(札幌), 후쿠오카(福岡)와 함께 政令指定都市로 승격

4 조나िका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는 岩崎信彦 외(1989)를 참조.

5 일본에는 현재 가와사키를 비롯하여 요코하마(横浜),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고베(神戸), 기타큐슈(北九州), 후쿠오카(福岡), 사포로(札幌), 히로시마(広島), 센다이(仙台), 치바(千葉)의 12개 政令指定都市가 있다.

되면서 5개의 區-가와사키(川崎), 사이와이(幸), 나카하라(中原), 다카츠(高律), 다마(多摩)-가 설치되었고, 1981년도 다카츠구, 다마구가 분구되어 미야마에(宮前), 아사오(麻生)가 신설됨으로써, 현재는 7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다(吉田健次 1987; 大澤善信 1987). 대도시지역의 공식적인 행정기구로는 구가 최하 단위 조직으로, 가와사카시의 경우 각 구는 현재 약 13만 내지 20만 정도의 인구를 관장하고 있다. 행정 편의상 하나의 구 안에 구청(區役所) 이외의 지소(支所)나 출장소(出張所)를 두기도 하며, 가와사키구의 경우에는 다지마(田島)와 오오시(大師) 두 곳에 지소를 두고 있다(川崎市『'92統計ハンドブック』).

가와사키시는 상이한 성격을 가진 4개의 지역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첫째, 전통적으로 가와사키의 공업도시적 특성 기반이 되어 온 철강, 석유, 화학공업 중심의 남부 임해공업지구로, 가와사키구의 오오시(大師)지구와 다지마(田島)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금융, 상업,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는 가와사키역 주변 상업지역으로, 가와사키구의 주오(中央)지구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전기전자, 정밀기계 산업 중심의 내륙공업지구로, 사이와이구와 나카하라구 지역이다. 넷째,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간 중에 농촌에서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개발된 신흥주택지로 이루어진 북부주거지역으로, 다카츠구, 미야마에구, 다마구, 아사오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지역별 특성은 가와사키시의 역사적인 도시화, 산업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현재의 주민구성과 주민조직의 형태 및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남부의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에 걸쳐 전국의 농촌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공업노동자들이 정착함으로써 형성된 주거지로서, 1970년대 이후 인구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구시가지이다. 북부는 1960년대 이후 동경으로부터 유입된 화이트칼라층을 중심으로 하는 신주민이 정착함으로써 형성된 신시가지로, 급격한 인구증가추세를 보여 1991년도 기준으로 가와사키시 인구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吉田健次, 1987; 川崎市, 『'92統計ハンドブック』).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와사키시 전체의 쇼나이카이 수는 1957년의 244개로부터 1991년에는 607개로 증가하였으며, 시기별로 보면 특히 1960년부터 1965년, 1970년부터 1975년까지의 일본 경제 '고도성장기'에 급속히 증가하였다. 쇼나이카이의 형성과정은 각구별로 편차를 보인다. 남부 가와사키구의 경우에는 1957년경까지 쇼나이카이의 결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조적으로, 북부의 다카츠구, 미야마에구와 다마구, 아사오구는 1960년대 이후 새로이 결성된 쇼나이카이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명칭에 있어서도 남부 지역에서는 쇼나이카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북부 지역은 지치카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와사키시 쇼나이카이의 유형은 남부의 구시가지에 상당한 역사를 가진 쇼나이카이와 북부 신시가지에 새로이 결성된 지치카이로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 Ⅲ. 川崎市, 鎌倉市の 町内會 활동 사례

이 절에서는 조나िका이의 기능과 성격을 밝히고 그 기능 활성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가와사키시 소재 3개와 가마쿠라시 소재 1개 단위 조나िका이의 활동에 대하여 지역적 배경과 주민구성, 조나िका이 조직과 리더쉽, 활동 내용, 수입·지출 내역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도시 지역에서 조나िका이는 지역 내의 공동생활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또한 각기 대내적 활동으로서 생활충족활동과 지역통합활동, 대외적 활동으로서 대행정활동과 대지역사회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충족활동이란 지역내 공동생활의 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을 유지, 개선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지역통합활동은 지역주민 간의 친목과 교류, 이해관계의 조정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대행정활동은 행정기관에의 보조와 참여, 압력을 의미하고, 대지역사회활동은 코뮤니티나 학구 등의 기타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을 의미한다(菊池美代志, 1990: 222-233).

〈표 1〉 가와사키시의 町内會·自治會 수 및 명칭

구명/연도	단위 町内會·自治會 수				町内會·自治會 명칭(1987년)		
	1957	1970	1980	1991	町内會	自治會	기타
가와사키	83	88	90	91	98%	1%	1%
사이와이	31	42	65	66	70	27	3
나카하라	52	73	76	74	80	11	9
다카즈	49	122	151	102	50	46	4
미야마에				69	21	65	14
다마	29	114	175	112	26	51	23
아사오				93	36	54	10
합 계	244	439	557	607			

자료: 吉田健次, 1987: 528; 齊藤昌男, 1988: 41; 川崎市全町内會連合會 제공 자료.

#### 1. 櫻本1丁目 町内會

사쿠라모토 1조메(櫻本1丁目) 지역은 가와사키구 남부의 구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다지마(田島) 지소 관할구역이다. 조나िका이는 린코(臨港)지구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다. 전후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100여개의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비교적 큰 상점가를 이루고 있으며, 1960년대 초부터 독자적인 상점가진흥조합이 결성되어 마치즈쿠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문옥표, 1993 참조). 사쿠라모토 상점가 상인의 90% 이상이 상점가 내에 거주하고 있다. 20세기 초부터 가와사키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증공업지역에 가까운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알려졌으며, 전전부터 상당한 수의 재일 한국인도 거주하여 현재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 대표적인 슬럼지역의 하나로 알려져, “사쿠라모토 출신의 머느리 얻기를 기피한다”는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며, 주택개량이 상당히 진척된 현재도 소위 일본에서 ‘만손’(マソシヨソ)이라 불리우는 현대식 아파트 건물은 한채도 없는 상태이다. 현재의 주민은 영세 자영상공업자, 노동자, 재일 한국인등 다양한 부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구성의 안정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사쿠라모토 1조메 조나이카이는 전전(戰前)의 隣組조직을 모태로 하여 1950년대초에 결성되었다. 조나이카이와 지치카이 명칭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결성 당시에는 지치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후에 조나이카이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1992년 현재 사쿠라모토 1조메는 21組 76班의 116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749세대가 조나이카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약 6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와사키구 전체의 평균 조나이카이 가입률 85%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미가입 가구 중에는 노인단독가구나 독신노인가구,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못한 독신가구 등이 많으며, 이는 남·여 인구가 1543명:1269명으로 상당한 남초(男超) 현상을 보이는 인구구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川崎市, 『'92統計ハンドブック』): 「櫻本1丁目町内會 會員名簿」).

본 조나이카이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영세 자영상공업자 출신의 노인들로서, 1년으로 규정된 임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연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예컨대 1990년 4월 1일 기준으로 회장은 68세의 자영업자 출신으로 5년 전에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993년 2월의 현지조사 시점에까지도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부회장 두 명 가운데 하나는 62세로 8년 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63세로 2년 전에 부회장에 취임하였다. 회계, 감사, 그리고 각 부장들 15명 가운데 신임 간부는 3명에 불과하고, 이들을 제외한 간부들의 평균재임기간은 약 4.3년이며, 1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이도 3명이나 된다.

본 조나이카이의 활동은 총무부, 교통부, 방법부, 위생부, 후생부, 문화부, 廣報部, 부인부, 노인회, 어린이회, 어머니클럽의 12개 부를 중심으로 수행된다. 이 지역의 조나이카이 활동은 대단히 정제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표 1>에 월별로 제시되어 있는 연간 활동 내용에서 두드러져 보이는 특징은 조나이카이 활동이 주로 행정 당국의 스케줄과 이니셔티브에 따르는 행정보조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교통안전, 방법, 방재, 방화, 대청소, 공납금 징수 및 모금 등의 활동이다. 1990년 이 지역에 7체의 가옥이 전소되는 큰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조나이카이는 행정 당국에서 지급하는 위로금 전달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서도 조나이카이의 비활성화와 행정의존을 알 수 있다.<sup>6</sup> 또한 조나이카이는 시정(市政) 홍보물 배포와 월 1회 실시하는 재활용 폐품 수거활동에 대하여 가와

6 이와 대조적으로, 조나이카이가 화재 등의 긴급사태 처리와 상호부조 활동을 전담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다(倉澤進, 1990).

사키시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친목도모 활동은 조나이카이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사쿠라모토는 의례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츠리(祭り), 봉오도리(盆踊り), 경로행사, 운동회, 세츠분(節分祭)<sup>7</sup>만 수행하고, 다른 조나이카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인식이나 신입학생 축하회와 같은 행사는 거행되지 않고 있다. 상점가나 후레아이칸 등의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사회단체에 대하여도 소극적 거부권 행사 이외에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문옥표, 1993 참조).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조나이카이의 회원 1세대당 연간 지출액은 4157 엔으로 4개의 사례 중에서 가장 낮다. 수입 내역을 보면, 다른 조나이카이와 비슷하게 약 반 정도가 정구 회원들의 회비로 구성되며, 특별회원으로 되어 있는 관내 상점들로부터의 회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sup>8</sup> 회관운영에서 나오는 수입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나이카이 회관은 1958년 행정당국의 보조 없이 지역유지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고 토지를 임대하여 건축한, 대지 254m<sup>2</sup>, 건평 156m<sup>2</sup>, 목조 2층의 낡은 건물인데, 회원들에게 장례식, 연회 등의 다양한 용도로 대여해 주고 건물과 기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다. 토지 임대와 관한 공식적인 계약은 체결한 바가 없고, 1989년도에 처음으로 계약 갱신과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엔을 지주에게 지불하였다. 이 당시 150만 엔은 신용금고로부터의 융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1989년에는 원리금 537,646엔을 조나이카이에서 상환하였다. 지출의 구성에 있어서 눈에 띄는 점은 회관 운영비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각부 활동비와 행사비의 비율이 모두 타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점이다. 이상에 논의한 수입, 지출 내역은 조나이카이 활동의 저조함과 조나이카이 활동의 구심점으로서의 회관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2. 大島1丁目 町内會

오오시마(大島)는 사쿠라모토에 인접해 있으나, 역과 시청 및 기타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는 가와사키시 중심부와 가까운 지역으로, 행정상으로는 가와사키 구청(區役所) 관할지역이며, 조나이카이는 주오(中央)지구연합회에 속한다. 1조메는 가와사키시 중심부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안정된 중산층 주택가로서, 90% 이상이 전후에 이주한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오오시마 1조메 조나이카이에는 전체 1,105 세대 중 852 세대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약 7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川崎市『'92統計ハンドブック』. : 「大島1丁目 町内會 會員名簿」). 조나이카이 지도자들은 대체로 퇴직 화이트칼라층의 노인들이며, 수차 연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예컨대, 1993년 2월 현재 회장은 72세의 전직 봉급생활자,

7 세츠분이란 입춘(立春) 전날을 의미하며, 이 날 붉은 콩을 뿌려 악귀를 쫓아내는 풍습이 있다.

8 본 조나이카이의 월회비는 일반회원의 경우 주택소유 세대는 200엔, 임대 세대는 150엔, 상점은 350엔, 특별회원은 1,000엔이다.

〈표 2〉 조나िका이 수입·지출 내역

수입	櫻本1丁目 (1989년)	大島2丁目 (1991년)	七里が浜 (1991년)
회비	176 (47%)	159 (53%)	519 (46%)
특별회비	44 (12%)	29 (10%)	
회관수입	82 (22%)	21 ( 7%)	100 ( 9%)
행정보조금	67 (18%)	42 (14%)	243 (21%)
기타	7 ( 2%)	4 ( 1%)	138 (12%)
이월금		43 (14%)	131 (12%)
합계	377	298	1,131

단위 : 10,000엔

## 지출

	櫻本1丁目 (1989년)	大島2丁目 (1991년)	七里が浜 (1991년)
조직운영비	71 (23%)	97 (22%)	164 (15%)
단체회비	19 ( 6%)	21 ( 5%)	88 ( 8%)
회관운영비	108 (35%)	135 (31%)	108 (10%)
외동관리비	51 (16%)	46 (11%)	184 (16%)
각부 활동비	40 (13%)	77 (18%)	217 (19%)
행사비	22 ( 7%)	55 (13%)	221 (20%)
기타		0	149 (13%)
합계	311	431	1,131

자료: 각 町内會 예산·결산 대비표.

부회장은 69세의 전직 공무원이며, 젊은 임원을 영입하고자 하는 적극적 노력의 결과 현직 시공무원인 50세의 부회장 1인을 선출하였다. 회장은 10여년 전부터 계속 조나िका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부회장은 5년 전부터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오오시마 1조메 조나िका이는 총무부, 문화부, 방법부, 방재방화부, 위생부, 외동부(外燈部), 교통부, 부인부, 보도부(補導部, 어린이회)의 9개 부와 노인클럽, 어머니클럽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에 나와 있는 각 조나िका이의 지출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비중이 있는 조나िका이의 활동 중 하나인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외동부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노인클럽과 어머니클럽이 조나िका이 조직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응답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나िका이에서는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나िका이 조직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부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 조나िका이 활동의 특징으로는 우선 어린이와 노인, 장·노년층의 주부 중심으로 자발적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활



성화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부인부는 조나िका이의 모든 행사에 적극 협력하며, 보도부의 경우에도 체육 지도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부인들이 활동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젊은 주부들의 모임인 어머니클럽과 부인부는 거의 교류가 없다. 노인클럽은 대체로 65세 이상의 남·여 노인들이 참여하는데, 조나िका이와는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며, 1993년 2월 현재 회원 규모가 약 170명 정도이다. 노인클럽은 매월 정례행사(점심 식사와 여흥), 연예회, 운동회, 여행, 사회봉사(교통정리, 외병노인 방문)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1년도의 지출에서 보도부에 25만엔, 부인부에 15만엔, 노인클럽에 7만엔이 배정됨으로써, 각부 활동비 77만엔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오오시마 1조메 조나िका이 활동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문화부 주관의 사교춤 모임이나 어머니클럽의 크리스마스 모임 등 최근에 비교적 젊은 중산층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의 참여가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타 부서, 즉 총무부, 방재방화부, 방법부, 교통부, 의정부, 위생부의 활동은 대체로 행정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표 2〉에 의하면, 오오시마 1조메 조나िका이의 1세대 당 연간 지출액 5059엔은 사쿠라모토 다음으로 최하위이며, 또한 그 내역에서 각부 활동비와 행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조나िका이가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3. 大島2丁目 町會

櫻本1丁目과 大島1丁目 사이에 위치한 오오시마 2조메 지역은 인근에 있는 도시바(東芝)전기 공장 직원들의 사택을 비롯하여 기타 NKK(日本鋼管) 등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주거지를 이루어 왔다. 현재 전전부터 이 지역에서 거주한 주민이 약 20% 정도이며, 주민간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별로 크지 않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동질적인 서민층 거주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오오시마 2조메에서는 조나िका이가 1947년 강제 해체된 후 방범협력회(防犯協力會)로 바뀌었다가 1950년대 초 부활되었는데, 이 당시 전전의 조나िका이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죠카이(町會)라는 현재로서는 특이한 명칭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1992년도 기준으로 총 549세대 중 390세대가 죠카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약 7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이 지역에서 거주한 토박이로서 젊은 시절 도시바전기의 노동조합 지도자로 상당한 명성을 쌓았던 68세의 죠카이 회장은 전전부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죠카이 부활 당시부터 간헐적으로 임원을 맡다가 60세에 죠카이 회장에 선임되고, 66세부터는 오오시마지구 連合町內會 회장에 재임하고 있다.

본 죠카이는 총무부, 재무부, 방법부, 방화부, 위생부, 교통부, 부인부, 보도부(補導部), 문교부, 사회복지부, 청년부의 12개 부로 구성되어 있다. 죠카이 조직상으로는 노인클럽과 어머니클럽이 없고, 청년부가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앞에 소개한 두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로, 조카이 활동 중 많은 부분은 행정보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부인부와 보도부가 독자적 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청년부에서 젊은층 남성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활동으로 수영대회나 바둑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에서는 폐품수집 활동이 활발하여, 1991-92 회계년도에 경비를 제외한 실수입액 49만엔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수입은 별도로 관리하며, 1991년도에는 어린이회와 福壽會(노인회)에 각각 15만엔, 12만엔을 지원하였다. 본 조카이의 1991년도 연간 수입과 지출은 297만엔과 279만엔으로, 회원 1가구당 연간 지출액 6935엔은 4개의 사례 중에서 2번째로 높은 것이다. 구체적인 용도별로 지출 내역을 편성한 다른 조카이와 달리, 이 조카이에서는 회관수리 준비금 30만엔과 외등수리비 10,000여엔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각부별로 배정하고 있다. 다른 연구사례와의 비교를 위하여 회관수리준비금과 외등수리비, 총무부, 재무부의 비용을 제외한 각부에서의 지출액 합계는 91.6만엔으로 총지출액의 34%이며, 이는 오오시마 1조메의 단체회비, 외등관리비, 각부 활동비, 행사비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등관리를 담당하는 방법부를 제외하고, 지출액이 많은 부서는 경로행사를 주관하는 사회복지부, 보도부, 부인부, 청년부의 순서이다.

#### 4. 七里が浜 自治會

이 절에서는 가와사키시 남부 지역과의 비교를 위하여, 일본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진보적인 지역주민조직의 하나로 알려진 가마쿠라(鎌倉)시의 시치리가하마(七里が浜) 지치카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가마쿠라는 요코하마에 인접한 유서깊은 고도(古都)로서, 오늘날에는 수도권의 격조높은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가마쿠라시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동네가 많으나, 시치리가하마는 60년대 후반 해변에 새로이 조성된 주거단지로서, 도쿄나 요코하마, 가와사키에 직장을 가진 화이트칼라층의 안정된 거주지역이다.

시치리가하마 단지는 이나무라(稲村) 5조메, 히가시(東) 2, 3, 4, 5조메의 5개 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5개 지구를 포괄하는 지치카이가 결성되어 있다. 1991년도에는 1460세대, 1992년도에는 1501세대가 지치카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연 4회 「하이비스카스」(무궁화)라는 제호의 지치카이 기관지가 발행되고 있다.

시치리가하마 지치카이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외에 기획, 서무·회관운영, 재무, 광고(廣報, 홍보), 총무섭의, 복지, 생활·문화, 행사·체육, 환경, 방재방법, 노인회, 어린이회의 11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 부서에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담당 이사(理事)가 있다. 총무섭의 부서는 시당국이나 외부단에 등과의 보다 원활한 관계 유지와 섭외 강화를 위하여 1991년에 신설하였다. 시치리가하마 지치카이는 여성의 참여가 활발하며, 임원진의 교체가 비교적 자주 일어나는 점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1991년도 전체 임원 29명 중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이 여성이며, 특히 재무, 복지,

생활·문화 부서와 어린이회는 전임원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ハイビスカス」 74호). 지치카이에는 2명의 전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시치리가하마의 지치카이는 '모두의 지치카이를 모두가 건설'한다는 모토 하에 '일상 생활에 뿌리박은 마츠리'를 목표로, <부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립된 환경 부서가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이 지역 주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환경문제로서, 지치카이 활동의 많은 부분이 이에 관련되어 있다. 호텔 건설과 지역개발 등의 생활환경 관련 현안에 대하여, 지치카이는 시당국이나 기타 지역사회를 상대로 행정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시치리가하마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가마쿠라의 숲을 지키는 연합회' 등의 시민단체와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平成2年度 七里が浜自治會 理事會經過報告」).

의사결정과 홍보, 행사 개최 방식에 있어서, 이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주민의 참여와 교류를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보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모금행사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앙케이트 조사가 실시된다. 지치카이의 심볼 마크 제정도 공모 방식을 채택하여, 신문 등의 각종 보도기관을 이용하여 진행과정을 자세히 홍보하고, 전주민에게 공모용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는 지치카이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총 246점이 응모하는 활발한 주민 참여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平成3年度 七里が浜自治會 理事會經過報告」). 생활·문화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인재은행(人材バンク) 활동이다. 인재은행이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지역주민들을 자원봉사 강사로 활용하여 지치카이 주최로 강습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 간의 친목과 동료의식, 연대감을 배양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강사에게는 1일 2시간당 2,000엔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1991년도에는 요리, 츠크모노(漬けもの, 채소절임), 수예, 자수, 조각잇기 수예(patchwork), 편물, 다도, 향수, 덧상, 나무고르기, 브리지, 기공(氣功), 스트레칭(stretch), 에어로빅, 사찰순례, 강연 등의 종목에서 84회의 모임이 열렸으며, 1992년도에는 사진, 인형 만들기, 그림 등의 종목으로 확장되었다(「平成3年度 七里が浜自治會 理事會經過報告」; 七里が浜自治會 生活文化だより; 「ハイビスカス」 75호).

이 지역에는 오랜 전통이 있는 신사(神社)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72년도부터 매년 8월 중에 10,000명 이상이 참가하여 다양한 행사를 벌이는 마츠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4월에 벚꽃 마츠리까지 개최되고 있다. 여름 마츠리 행사는 비용이 260만엔 규모인데, 이 중에서 146만엔(56%)은 기부금, 79만엔(34%)은 지치카이 출연금(직영점 수입과 예산), 25만엔(10%)은 집포 임대료로 충당된다(「ハイビスカス」 76호). 다른 지역에서의 마츠리와 달리 지치카이 자체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사실도 지치카이 활성화의 지표로 볼 수 있다.

노인회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sup>9</sup> <부표 4>에 제시된 활동이외

9 1991년 현재 시치리가하마 지역의 75세 이상의 노인은 290명이다(「平成3年度 七里が浜自治會 理事會經過報告」).

에도 여행, 합창, 서도, 원예, 춤, 수예, 하이쿠(俳句), 화투 등 13개의 취미 동호회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회에는 1991년 현재 126명의 회원중에서 소학교(국민학교) 6학년은 4명, 5학년은 11명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활동이 소학교 저학년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ハイビスカス」 74호).

시치리가하마 지치카이의 1991년도 회원 1세대 당 연간 지출액 평균은 7,537엔으로, 이 논문에 제시된 4개의 사례 중에서 가장 높다. 지출 내역에 있어서는 조직 운영비와 회관 운영비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반면, 각부 활동비와 행사비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 앞서 제시한 지치카이 활동의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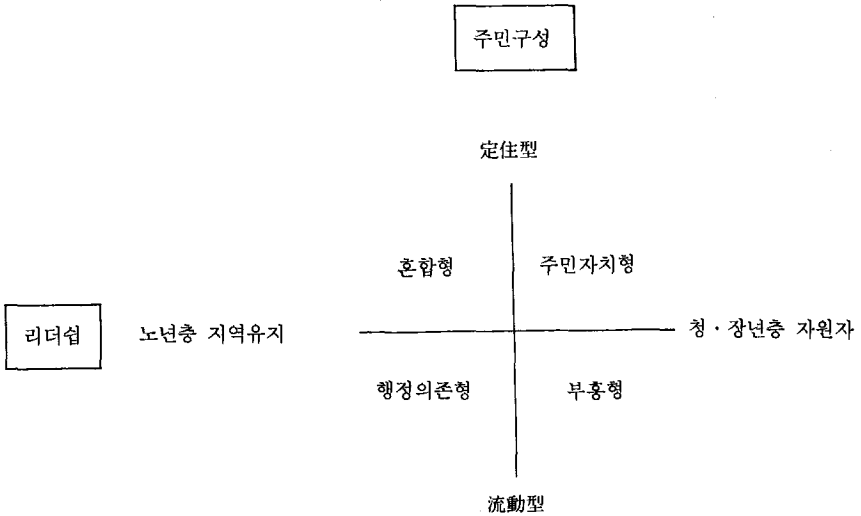
#### IV. 町内會의 기능과 전망

앞에서 살펴 본 4개의 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일본 도시지역 조나아카이의 기능과 성격 및 앞으로의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나이카이 활동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 조나이카이의 활성화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는 주민구성의 안정성과 리더쉽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 두 변수의 조합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조나이카이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행정의 존형 조나이카이는 다양하고 이동률이 높은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그 지역에 비교적 장기간 거주한 노년층 인사가 관례적으로 지도자로 선출되어 의례적이고 주로 행정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로, 사쿠라모토 1조메의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대조적으로, 주민자치형은 안정되고 동질성이 높은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주민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합치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조나이카이가 에도(江戸)시대의 조나이(町内)와 같이 주민자치의 기초조직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로, 시치리가하마 지역이 이 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혼합형은 주민자치형과 행정존형의 중간 형태로서, 오오시마 1조메와 2조메처럼 생활권이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민 일부—예컨대, 어린이, 노인, 전업주부 등—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흥형은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안정되지 못한 지역에서 헌신적인 지도자가 출현하여 조나이카이를 기반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경험적으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상에 지적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보아 조나이카이의 가장 기본적이고 비중이 큰 활동은 행정보조활동이며, 생활충족활동과 지역통합활동도 행정보조업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 많다. 조나이카이는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주민자치조직이라기보다는 관습적인 행정보조기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조나이카이의 복합적 기능과 역사적 지속성은 일본의 고유한 문화형이나 자연발생적 자치 기능보다는 행정적 필요성에 따른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본다.

〈그림 1〉 조나िका이의 유형



셋째, 조나िका이가 역사적으로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력을 보여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앞에 제시된 시치리가하마나 오오시마 지역의 사례처럼 지역주민의 관심과 생활양식에 부합하는 자발적 결사체적 성격을 가미함으로써 조나िका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도 그 적응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회에서 상당한 광역을 단위로 하는 현재의 행정조직 편제가 지속되고 행정과 소규모 지역사회를 매개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행정 당국의 결연한 의지가 없는 한, 조나िका이는 끊임없이 변용과정을 거치고 다양한 형태와 위상을 갖기는 하지만 최소한 다기능 행정보완조직으로서 존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록 : 조나이카이 연간행사

### 〈부표 1〉 櫻本1丁目 町内會

4월	신·구합동임원회, 총회, 교통안전운동, 방법운동 협력
5월	봄 대청소
6월	적십자모금
7월	神社察禮 준비
8월	神社察禮, 봉오도리(盆踊り)행사, 방법공로자 추천
9월	경로의 날 행사, 가을 교통안전운동, 방재훈련 참가
10월	'빨간 깃털'(赤い羽根) 모금
11월	町内會창립기념 운동회, 연말 이웃돕기(助け合い) 모금
12월	연말 야정
1월	임원신년교례회
2월	방화운동, 투표사무종사자 추천, 神社 節分祭 참가
3월	임원개선, 임원친목여행

자료: 「櫻本1丁目 年間行事表」.

### 〈부표 2〉 大島1丁目 町内會

총무부	정기총회, 매월 부장회, 매월 이사회, 임원 연수여행(2월), 봉오도리(7월), 마츠리(8월), 경노회(9월 15일), 성인식(1월), 町内 소프트볼 대회, 大島지구 연합운동회(10월), 회관 수리
보도부	社協야구대회(4월), 社協 어머니 터치볼 대회(11월), 社協 강연회시 어리이회연합회 야구(6-7월) 및 터치볼(9월) 대회 여성방학 학습회(8월), 연수여행(8월), 봉오도리, 마츠리, 3세대 페스티발(11월), 청소년 페스티발(11월), 소학교 신입생 환영 및 졸업생 환송 떡만들기 대회(3월), 공원 청소(월 1회), 폐품회수(6, 9, 12, 3월)
부인부	교통안전, '빨간 깃털' 모금운동 참가 봉오도리, 마츠리, 경노회 참가 꽃꽂이 강습회, 1일여행
문화부	교통안전, 연말야경 참가 봉오도리, 마츠리, 경노회 참가 민요 애호회(월3회), 사교춤 애호회(월3회), 골프 클럽
방재방화부	춘계 화재예방운동 참가, 방화 강연회 참가, 소화기 주선
방법부	시방법협회 총회 출석, 시 방법집회 참가, 연말연시 야경
교통부	시교통안전대책협의회 총회 및 연수회 참가, 교통재해공제 가입신청 봉오도리, 마츠리
외등부	가로등 정비점검
위생부	건강진단(5월, 114명), 자궁암 간검진(1월, 11명), 쥐약 배포
어머니클럽	신년교례회, 크리스마스 모임, 불링 대회 건강교실, 수예교실, 요리교실 개최 봉오도리, 마츠리, 신입학아동축하회 참가
노인클럽	게이트볼대회 참가, 도로청소 및 풀뽑기

자료: 「大島1丁目 町内會 平成3年度 行事報告書」.

〈부표 3〉 大島2丁目 町會

월	활동 내용	주무부서
4월	임원진 구성, 업무분담, 정기총회 청소용구 분배(공원주변 10가구) 大島지구패트룰	총무, 부인 총무, 문교 방법
5월	交通어머니회, 사회복지협의회 임원추천 건강진단 (총290명) 花木展 (130그루) 춘계 전국교통안전운동 어린이회 총회	총무 위생 문교, 부인 교통 보도
6월	등불모금 적십자 모금 祭典위원회 개최 레크리에이션, 여행 교통재해공제 갱신(총621명) 자전거 종합보상제도 가입신청	총무 사·북 총무 부인 교통 보도
7월	'사회를 밝게하는 운동'(노래, 강연회) 여름방학 새벽 라디오 체조(7.22-7.30)	총무 보도
8월	神社祭禮 재해구호금 모금 방법공로자 추천 풀 개장 및 수영대회	총무, 청년, 부인, 보도 총무 총무 청년, 보도
9월	市방화훈련 경로회(65명) 추계 전국교통안전운동	총무, 방화 총무, 사·북, 부인 교통
10월	大島연합町內會 대운동회 방화협회 지부임원회 '빨간깃털' 모금 위암검진(15명)	총무, 부인 방화 사·북, 부인 위생
11월	구충약 배포, 건강상담/학습회(市 주관)	위생
12월	연말 야경 활동 연말 이웃돕기 모금	총무, 방법, 부인, 교통 사·북
1월	전임원 신년교례회, 상점가 신년회 참가 成人 기념품 증정 지구소프트볼대회 참가, 바둑대회 서예대회, 서예전, 하내(羽根)만들기 대회	총무, 부인 청년, 부인 청년 보도
2월	神社 節分祭 참가	총무
3월	신구합동임원회 국신입, 중졸생 송·환영행사	총무, 부인 총무, 보도, 부인
기타	정기 임원회 12회, 이사회 11회, 部會 1회, 교문회의 1회 폐품회수 월1회 가도동 관리 주1회 꽃꽂이, 일본무용 터치볼대회, 소년야구대회 참가	총무 총무 방법 부인 보도

자료: 「大島2丁目 町會 總務部 平成3年度 事業經過」.

## 〈부표 4〉 七里が・自治會

이사회, 위원회	이사회 13회, 각종위원회 수시, 평의회 2회, 지구위원회 2회
夏祭り	8월 24-25일, 약 10,000명 참가
홍보	기관지 연4회 발간
복지	적십자 모금, 마츠리 협력, 경로행사(75세 이상 290명), '빨간 깃털'모금, 이웃돕기 모금, 양케이트 실시, 성인식
생활·문화	植木市, 알뜰시장(がらくた市), 市시설 순례, 1일여행, 작품전, 차고 세일, 1박2일여행, 인재은행(人材バンク), 신년교례회, 편물교실, 수예교실, 과자만들기교실, 어린이 공작교실, 심볼 마크 공모.
방재방법	방법연락소 책임자 추천, 경찰과의 간담회, 방법등 설치, 코너등 설치, 자동차·자전거 통행금지 간판 설치, 소방훈련
행사·체육	市숲 조성, 마츠리 협력, 소학교지구 시민운동회 공동주최, 1박2일 여행(생활·문화부와 공동)
서무·회관운영	회관사용 상황(91/4-92/3) 445건, 수입 994,350 엔
환경	월1회 공공시설 정기청소, 연2회 해안청소, 가로미판, 화제예방을 위한 제조작업 市에 요청, 廣町개발, 프린스 호텔 건축문제
노인회	벚꽃놀이, 노인대학, 해안청소, 크린(clean)운동, 植木市, 마츠리, 사찰순례, 영화상영, 창립20주년 축하회, 생일축하회(연3회), 라디오제조, 시노인연합회체육대회, 자치회 문화제 참가, 독거회원과의 간담회, 신년회, 1일여행, 취미작품전
어린이회	공원청소(연3회), 해안청소(연2회), 라디오 제조, 오리엔티어링, 마츠리, 시민운동회, 고무마 캐기, 정월대보름 놀이, 오락회

자료: 七里が・自治會 「平成3年度 社業報告」; 「平成3年度 理事會 經過報告」; 「平成4年度 事業計劃」.

## 〈참 고 문 헌〉

川崎市

1992a 『'92統計ハンドブック』.

1992b 『私たちの川崎: 市勢概要平成4年版』.

川崎市 全町内會連合會

1993 「韓國日本研究團全町連説明資料」.

川崎市 櫻本1丁目 町内會 자료 및 면접조사 기록.

川崎市 大島1丁目 町内會 자료 및 면접조사 기록.

川崎市 大島2丁目 町會 자료 및 면접조사 기록.

鎌倉市 七里が浜 自治會 자료.

문옥표

1993 “지역개발 운동과 지역주민조직: 日本 川崎市 南部 6개 町内會를 중심으로,” 『지역연구』2(3).

Bestor, Theodore C.

1989 *Neighborhood Tokyo*,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Dore, R.P.



1958 *City Life in Japan: A Study of a Tokyo War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秋元律郎(Akimoto, Ritsuo)

1990 “中間集團としての町内會,” 倉澤進 秋元律郎 編著, 『町内會と地域集團』,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pp.129-157.

蓮見音彦(Hasumi, Otohiko)

1980 “戰後社會の展開と地域社會,” 蓮見音彦 奥田道大 編, 『地域社會會論: 住民生活と地域組織』, 東京: 有斐閣, pp.44-59.

岩崎信彦(Iwasaki, Nobuhiko)外

1989 『町内會の研究』, 東京: 御茶の水書房.

菊池美代池(Kikuchi, Miyoshi)

1990 “町内會の機能,” 倉澤進 秋元律郎 編著, 『町内會と地域集團』,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pp.217-238.

倉田和西(Kurada, Washio)

1990 “社會システムとしての町内會,” 倉澤進 秋元律郎 編著, 『町内會と地域集團』,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pp.160-190.

倉澤進(Kurasawa, Susumu)

1990 “町内會と日本の地域司會,” 倉澤進 編著, 『町内會と地域集團』,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pp.2-26.

倉澤進 秋元律郎(Kurasawa, Susumu and Akimoto, Ritsuo) 編著

1990 『町内會と地域集團』,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宮崎伸光(Miyazaki, Nobumitsu)

1992 “認可地緣團體制度の問題點: 改正地方自治法と市町村および自治會 町内會等の困惑,” 『都市問題』 83(1): 13-25.

中村八朗(Nakamura, Hachiro)

1990 “文化型としての町内會,” 倉澤進 秋元律郎 編著, 『町内會と地域集團』,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pp.62-108.

中田實(Nakata, Minoru)

1992 “地域社會の變動と町内會 自治會,” 『都市問題』 83(1): 3-12.

大澤善信(Osawa, Yoshinobu)

1987 “政治勢力の構成とダイナミズム,” 島崎稔 安原茂 編, 『重化學工業都市の構造分析』 第14章 [「工都」川崎の政治過程と住民自治] 第1節,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877-900.

生活科學調査會(Seikatsu Kagaku Chosakai) 編

1962 『町内會・部落會』 東京: 醫齒藥出版株式會社.

田中重好(Tanaka, Shigeyoshi)

1990 “町内會の歴史と分析視角,” 倉澤進・秋元律郎 編著, 『町内會と地域集團』,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pp.27-60.

谷富夫(Tani, Tomio)

1988 “川崎市のユミユニテイ施策,” 『社會分析』 17: 15-18.

山本賢治(Yamamoto, Genchi)

1989 “膨脹する縣廳所在都市の町内會：鹿兒島市の事例,” 岩崎信彦 外 『町内會の研究』, 東京：御茶の水書房, pp.215-234.

吉田健次(Yoshida, Kenji)

1987 “居住組織の機能と性格,” 島崎稔・安原茂 編, 『重化學工業都市の構造分析』 第9章 [居住組織と住民の利害團體] 第1節, 東京：東京大學出版會, pp.527-550.

吉原直樹(Yoshihara, Naoki)

1989 『戦後改革と地域住民組織：占領下の都市町内會』, 京都：ミネルヴァ書房.

## The Social Function of Neighborhood Organization in Japan: Old-Fashioned Chonaikai and New-Fashioned Jichikai

Jeong-Ro Yoon

There have been arguments on the nature and prospect of the postwar chonaikai/jichikai, a virtually ubiquitous neighborhood organization in Japan. The central issue is whether the organization is a modern and voluntary citizens' organization for grassroots democracy and autonomy, a non-voluntary and conventional institution subsidiary to the administration, or a spontaneous organization as an expression of the 'cultural pattern' peculiar to Japan. With a view to substantiating the arguments, I investigate three areas in the southern part of Kawasaki City and a rather new residential complex along the coast of Kamakura City. The analysis focuses on the socioeconomic composition and stability of population, structure and leadership of the organization, substance of activities, and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The chonaikai/jichikai activities vary substantially across areas. Among the critical variables for the activation of the neighborhood organization are the stability of population and organization leadership.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variables classifies the neighborhood organizations into four types: administration-dependent, autonomy-oriented, mixed, and reviving one. The more homogeneous and stabler in population and the more volunteers and younger in leadership, the more activated is the neighborhood organization.

Despite the variation, however, the most fundamental activities of neighborhood associations involve the supplementation of administrative service. The multifunctionality and historical tenacity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is rather attributed to the administrative need. The neighborhood organization has adapted itself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the recent effort for revitalization by tempering it with the voluntary association-like activities is a part of the adaptive process. As long as the lowest level of form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continues to cover a relatively large size of area and population and unless the administration is determined to institute a radically new mechanism intermediating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individual residents, the neighborhood organization will survive, at the least, as an organization supplementing the administrative function.

윤정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양과정부 교수

Tel: (042) 869-4625(O), (042) 861-7467(H)